

16/01/24(주) 주일예배 / 제목 :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눅16:1~13) p.122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됴이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밭을 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불의한 사람도 지혜롭게 사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은 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 /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이 비유를 듣고서도 돌이키기는커녕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대기업은 흑자를 보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성인의 80%가 일생에서 일정기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빈곤이 널리 퍼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문에도 보니 예수님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는 몇 개의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잘못 처리하여 꾸중을 들어 마

땅한 청지기를 주인은 도리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할 성경적인 재물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 /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됴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너에 관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한 후 그를 해고할 뜻을 밝힙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갑자기 위기에 빠 집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청지기는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발단은 청지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별로 뉘우침이 없이 그저 남의 탓을 하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지기는 위기를 극복할 방도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절박한 심정의 표현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당시 땅을 파는 일과 빌어먹는 일은 둘 다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땅을 파는 일은 보통 포로로 잡힌 종이나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으며, 가장 힘든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청지기는 땅을 팔 힘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빌어먹는 일도 일종의 직업으로 병에 걸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구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거지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는데 이는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구걸로 버는 수입이 상당했으며,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정을 얻기 위하여 장애인처럼 가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지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 계획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차피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실행하고자 그는 갑자기 분주해 집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빛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해마다 소작료를 바치는 소작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앉아 ... 쓰라” 비밀리에 부정한 일을 하는 청지기의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유에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름과 밀은 대표적인 생필품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소작인들에게 각각 500데나리온씩을 탕감해줍니다. 5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반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하는 큰돈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지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채무자들의 빚도 이와같이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면 당신이 내 생활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선대해 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내가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내가 갈 곳이 없어질 때에 저희들이 내가 머물 곳을 제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놈이 다 있나?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 재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줘!” 그러면서 ‘공문서 위조죄’와 ‘횡령죄’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두 번이나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는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 그가 주인의 이름으로 각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 것은 분명히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공문서 위조 행위입니다. 여기서 청지기의 행위로 인해 주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빚의 액수를 줄여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예상치 않게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으나 주인은 청지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허락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모든 빚의 탕감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확신했던 것은 주인이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비유는 하나님의 관대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것, 자기 맘대로 탕감해 준 것, 이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가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된 미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세의 상급**을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더욱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본문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가리키며, ‘자기 시대’는 불신앙

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준비 면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의 목적은 결코 불신자들의 부정직과 사기술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 몇 푼에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주인이 자기의 소유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청지기가 빛을 깎아준 행동을 인하여 크게 분노하며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기보다 칭찬하였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소작인들에게 빛을 깎아준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행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 즉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거나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그리고 ‘친구’는 그 재물로 섬겨서 구제받은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는 청지기의 직위가 끝나는 때, 이생을 마감하는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서는 때를 말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사람들을 도와주어 앞날을 예비한 것과 같이,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믿는 자들도 세상의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장차 올 세상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재물’ 곧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곧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묻지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받는데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베푸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양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동기에 있습니다. 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만족을 주는 수단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미래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를 위해 현재의 부를 사용한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부와 재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충성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청지기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이 충성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도 충성입니다. 맡은 일의 크기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이란 단어를 네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세 가지 대조를 언급하십니다.

첫째로 작은 것과 큰 것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겨우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의 대조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말합니다. 참된 것은 진정한 보화, 즉 하늘에 둔 보물과 같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종말에 하늘의 참된 것을 받는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로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의 대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12)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대로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이 원리는 재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능력, 시간 등도 해당됩니다.

3)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충성이란 몸과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운데 서서 두 주인을 섬기면 언젠가 두 주인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한 주인만을 섬기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의지하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한쪽이 우위에 있으면 다른 한 쪽은 경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들, 특히 영적인 것들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 자체에 인격은 없지만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재물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가 재물을 섬기는 자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딤후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모든 관심과 시간을 쏟는 이 시대에, 돈 대신 영원한 부를 사모하며 오히려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리를 쫓겨난 후에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훗날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죽을는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재물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거기에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대로 선용할 줄 아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랑 베푸는 삶에 써야 합니다.

요약정리 /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